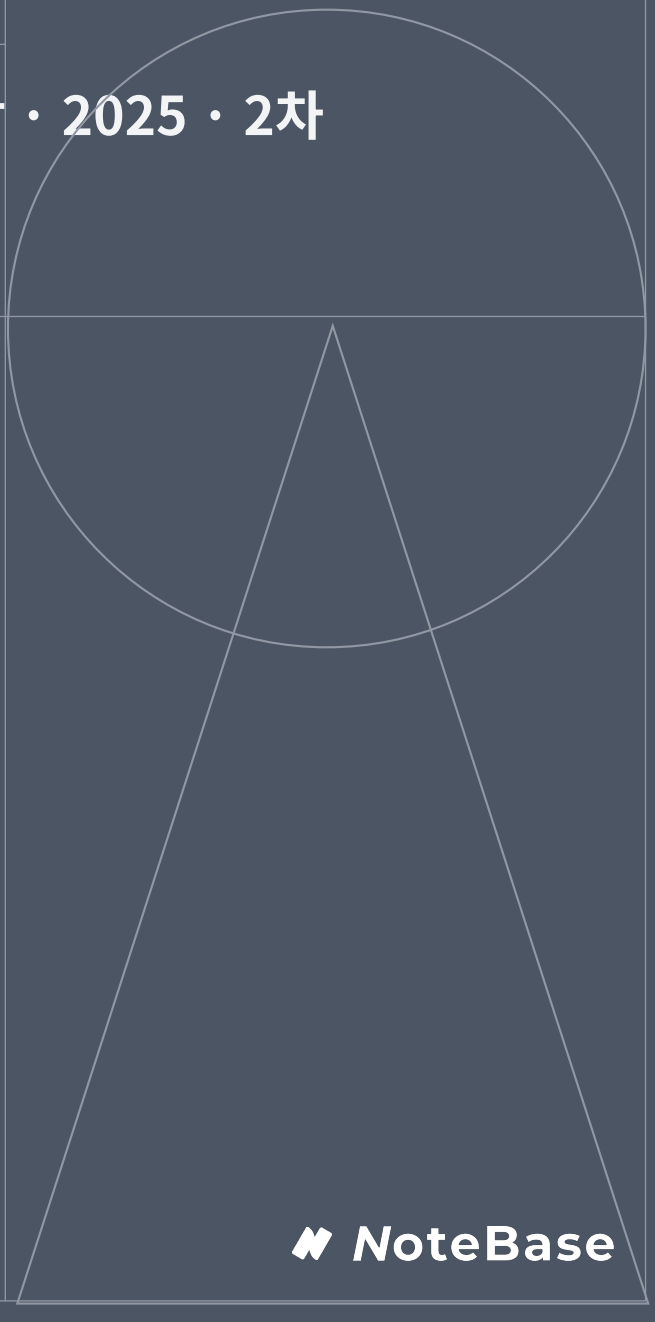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5 · 2차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ㄴ.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ㄷ.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ㄹ.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 요소이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므로,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보다 낮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현행원가, 공정가치, 비용의 정의와 수익·비용 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5 · 2차

핵심 개념

현행원가: 측정일 현재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데 드는 현재 원가이다. 키워드는 현재 취득원가와 거래원가 포함이다.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다. 키워드는 매도 가격과 부채 이전 가격이다.
비용: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는 항목이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
수익과 비용 정보: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지만 재무성과를 보여 주는 핵심 정보이므로 자산·부채 정보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의 조합인데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표현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이다.
- ㄴ은 비용을 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에 따른 자본 감소로 보되,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므로 옳다.

② X
- ②는 ㄱ, ㄹ의 조합인데 두 문장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 ㄱ의 틀린 표현은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이다.
- ㄹ의 틀린 표현은 "그 정보의 중요성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보다 낮다"이다. 올바르게는 "수익과 비용 정보도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므로 자산과 부채 정보만큼 중요하다"이다.

③ O
- ③은 ㄴ, ㄷ의 조합이며 두 문장 모두 옳다.
- ㄴ은 비용의 정의를 정확히 적었다. 비용은 자산 감소 또는 부채 증가로 자본이 감소하는 항목이고, 소유자에 대한 분배는 제외한다.
- ㄷ은 공정가치를 정확히 적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이다.

④ X
- ④는 ㄴ, ㄷ, ㄹ의 조합인데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는 오답이다.
- ㄹ의 틀린 표현은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므로 그 정보의 중요성이 더 낮다"라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수익과 비용은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더라도 재무성과 정보를 제공하므로 독자적으로 중요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현행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현재시점의 측정치라고만 외우면 ㄱ과 ㄷ을 함께 맞는 문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현행원가는 동일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원가이고,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이라는 차이를 잡아야 한다. 또 수익·비용이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연결하면 ㄹ에 걸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측정기준 문제는 먼저 취득원가인지 매도가격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개념 정의 문장은 포함 요소와 제외 요소를 확인한다. 비용은 분배 제외가 핵심이고, 수익·비용 정보는 재무성과 정보로서 자산·부채 정보와 나란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행원가는 다시 사는 값, 공정가치는 팔거나 이전하는 값, 비용은 분배 제외 자본 감소이다.

NoteBase

문 2.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③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요건과 회계처리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 중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이다.
우발부채는 현재의무이더라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래사건에 따라 존재가 확정되는 잠재의무이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미래사건에 따라 유입이 확정될 수 있는 가능한 자산이므로 인식하지 않으며,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어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이 경우에는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 결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제삼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면 그 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인식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당부채 관련 변제권의 인식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② O. 우발부채는 처음에는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후 상황 변화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속 평가한다. 그 결과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전환하여 인식하게 된다.
③ O. 우발자산은 미래 수익을 성급히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자산을 인식하는 처리가 타당하다.
④ X. 틀린 표현은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이다. 손실부담계약은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기대 효익을 초과하여 현재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손실부담계약과 우발부채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손실부담계약은 현재의무가 이미 존재하므로 인식 대상이고,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의무가 이미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 추정이 가능하면 충당부채로 본다. 현재의무가 불확실하거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발부채, 유입 측면의 불확실한 가능성은 우발자산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충당부채는 인식하는 부채, 우발부채는 공시 중심의 부채 가능성, 우발자산은 거의 확실해지기 전까지 인식하지 않는 자산이다.

NoteBase

문 3. 재무제표 표시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과 비용의 중요한 항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④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구분, 기타포괄손익 관련 세금 공시, 비용 분류 방식, 그리고 특별손익 항목 표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손익은 한 기간에 인식된 수익과 비용 중 기준서가 예외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정한 항목을 제외한 부분이다.
기타포괄손익은 기준서가 당기손익이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도록 정한 수익과 비용이다.
중요한 수익·비용 항목의 별도 표시는 가능하지만, 이를 특별손익 항목이라는 별도 범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중요한 수익과 비용 항목은 보고서 본문이나 주석에서 별도로 표시할 수 있지만,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서 이를 특별손익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중요한 항목을 별도 공시할 수는 있으나 특별손익이라는 명칭으로 분리 표시할 수는 없다.

② O
한 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이러한 예외 항목만 따로 분류하는 구조이므로 선지의 진술이 맞다.

③ O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에는 관련 법인세효과가 따르며,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해당 세금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따라서 공시 위치를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으로 본 설명은 맞다.

④ O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석하여 표시한다. 어느 분류방법을 적용할지는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지의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중요한 항목의 별도 표시 가능'과 '특별손익 항목 표시 허용'을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학생들이 중요 항목을 따로 보여 줄 수 있다는 문장을 보고 곧바로 맞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IFRS 체계에서는 특별손익이라는 별도 범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포괄손익계산서 문제에서는 먼저 '당기손익이 원칙이고 기타포괄손익은 예외'라는 구조를 잡는다. 그다음 선지에 '특별손익', '임의의 별도 범주', '비용 분류는 하나만 가능' 같은 표현이 나오면 기준서가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단정한 표현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중요 항목은 별도 공시 가능, 특별손익 항목 표시는 금지이다. 비용 분류는 성격별 또는 기능별 중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방법을 쓴다.

NoteBase

문 4. 다음 (주)한국의 20×1년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관련 자료를 이용한 현금 수취 임대료는?

○ 재무상태표상 잔액

구분	기초	기말
미수임대료	₩ 300	₩ 200
선수임대료	₩ 400	₩ 100

○ 포괄손익계산서상 인식한 임대료 수익 ₩ 600

① ₩400

② ₩600

③ ₩700

④ ₩1,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발생주의에서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의 기초·기말 변동을 반영해 현금 수취 임대료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포괄손익계산서상 임대료 수익은 600원이다. 미수임대료는 기초 300원에서 기말 200원으로 100원 감소했다. 선수임대료는 기초 400원에서 기말 100원으로 300원 감소했다. 구해야 할 값은 현금으로 실제 수취한 임대료이다.

사용할 공식

현금 수취 임대료는 임대료 수익 + 미수임대료 감소액 - 선수임대료 감소액으로 구한다. 미수임대료 감소는 과거에 수익만 인식하고 못 받은 금액을 이번에 회수한 것이므로 현금을 더하는 항목이다. 선수임대료 감소는 과거에 이미 받은 현금을 이번 수익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번 현금에서는 빼는 항목이다.

계산 과정

미수임대료 감소액은 100원이다. 선수임대료 감소액은 300원이다. 따라서
$600 + (300 - 200) - (400 - 100) = 400$이므로 현금 수취 임대료는 4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이다. 계산 결과 현금 수취 임대료는 400원이다. 미수임대료 100원 감소는 현금 가산이고 선수임대료 300원 감소는 현금 차감이므로 400원이 된다.
② X이다. 60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만 본 값이다. 틀린 표현은 수익과 현금 수취액을 같게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의 변동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③ X이다. 700원은 미수임대료 100원 감소만 더하고 선수임대료 300원 감소를 빼지 않은 값이다. 틀린 표현은 선수임대료 감소를 무시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선수임대료 감소액 3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400원이 된다.
④ X이다. 1,000원은 선수임대료 감소 300원을 반대로 더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선수임대료 감소를 현금 가산 항목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선수임대료 감소는 과거 선수금의 수익화이므로 이번 현금에서는 차감한다.

오답 포인트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를 모두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면 오답이 된다. 자산인 미수임대료 감소는 현금 가산이고 부채인 선수임대료 감소는 이번 수익에 포함된 과거 현금이므로 현금 차감이라는 방향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에서 현금을 역산할 때는 관련 자산 계정은 감소분을 더하고 증가분을 빼며, 관련 부채 계정은 증가분을 더하고 감소분을 뺀다. 먼저 기초·기말 차이의 방향을 확정한 뒤 수익에 가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수익에서 현금으로 갈 때는 자산 감소 가산, 부채 감소 차감이다.

NoteBase

문 5.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 초 ₩10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관련 자료이다. 20×3년 말 재무상태표상 손상차손누계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 ₩40,000, 손상차손누계액 ₩10,000으로 보고
◯ 20×3년 초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으로 재추정
◯ 20×3년 말 회수가능액 ₩20,000

① ₩15,500
② ₩28,000
③ ₩55,500
④ ₩6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의 재추정 감가상각과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계산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100,000원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20×2년 말 손상차손누계액: 10,000원
20×3년 초 재추정: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원
20×3년 말 회수가능액: 20,000원

사용할 공식

20×3년 감가상각비는 (20×3년 초 장부금액 - 재추정 잔존가치) / 잔존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회계추정 변경은 전진적으로 반영하고, 손상 인식 후 기말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2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 - 40,000 - 10,000 = 50,000원이다.
2. 20×3년 감가상각비는 $(50,000-2,000)/4=12,000$원이다.
3. 20×3년 말 손상 반영 전 장부금액은 50,000 - 12,000 = 38,000원이다.
4. 20×3년 말 추가 손상차손은 38,000 - 20,000 = 18,000원이다.
5. 따라서 20×3년 말 손상차손누계액은 10,000 + 18,000 = 2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손상차손누계액이 15,500원이면 기말 장부금액은 100,000 - 52,000 - 15,500 = 32,500원으로 회수가능액 20,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금액 15,500원 → 올바르게는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원이다.
② O: 20×3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52,000원이고 회수가능액은 20,000원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을 맞추는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원이다.
③ X: 손상차손누계액이 55,500원이면 기말 장부금액이 -7,500원이 되어 회수가능액 20,000원보다 더 낮아진다. 틀린 금액 55,500원 → 올바르게는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원이다.
④ X: 손상차손누계액이 68,000원이면 기말 장부금액이 -20,000원이 되어 자산 장부금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68,000원 → 올바르게는 손상차손누계액은 2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20×3년 감가상각을 취득원가 기준이 아니라 손상 후 장부금액 50,00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추정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분리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섞어서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이 이미 반영된 자산은 먼저 직전 장부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으로 재추정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뒤, 마지막에 기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과 일치하도록 손상차손누계액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재추정 감가상각은 손상 후 장부금액 기준, 기말 손상차손누계액은 회수가능액 기준으로 맞춘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월의 상품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고자산(상품)에 대한 감모 및 평가손실, 매입할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자	구분	수량	단가
1월 1일	전기이월	0개	–
1월 5일	매입	100개	₩210
1월 12일	매입	200개	₩215
1월 17일	매출	200개	₩300
1월 25일	매입	200개	₩230

①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은 동일하다.

② 계속기록법 사용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42,500이다.

③ 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시 월말재고액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이 더 크다.

④ 실지재고조사법 사용 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은 ₩16,00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적용할 때 매출원가, 월말재고액, 매출총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1월 5일 100개 × ₩210, 1월 12일 200개 × ₩215, 1월 17일 200개 매출 × ₩300, 1월 25일 200개 × ₩230이다.
구해야 할 값: 각 방법별 매출원가, 월말재고액,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기초재고는 0개이고, 감모·평가손실·매입할인은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은 판매 시점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매출원가로 나간다.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 = 매출가능상품원가 - 기말재고액으로 계산한다.
평균법은 평균단가 = 매출가능상품원가 ÷ 총수량으로 계산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선지가 모두 재고흐름가정과 기록방법에 따른 원가배분 결과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총매입원가와 총수량을 구하면 21,000 + 43,000 + 46,000 = 110,000원, 총수량은 500개이다.
2.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먼저 들어온 100개 × ₩210과 다음 100개 × ₩215이므로 21,000 + 21,500 = 42,500원이다.
3.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는 남은 300개를 최근 매입분부터 보면 200개 × ₩230과 100개 × ₩215이므로 46,000 + 21,500 = 67,500원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10,000 - 67,500 = 42,500원이다.
4.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의 평균단가는 110,000 ÷ 500 = 220원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액은 300개 × ₩220 = 66,000원, 매출원가는 110,000 - 66,000 = 44,000원, 매출총이익은 60,000 - 44,000 = 16,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록법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42,500원이고 실지재고조사법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도 42,500원이다. 따라서 두 방법의 매출총이익은 모두 60,000 - 42,500 = 17,500원으로 동일하다.
② O. 계속기록법에서 선입선출법은 판매 시점에 가장 먼저 매입한 재고부터 나간다. 따라서 100개 × ₩210 + 100개 × ₩215 = 42,500원이 매출원가가 된다.
③ X. 틀린 표현은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1,500이 더 크다"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 평균법 월말재고액은 66,000원이고 선입선출법 월말재고액은 67,500원이므로 평균법이 1,500원 더 작은 것이 맞다.
④ O. 실지재고조사법 평균법의 매출원가는 44,000원이므로 매출총이익은 60,000 - 44,000 = 16,000원이다. 제시된 금액이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상황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기말재고액 크기를 거꾸로 판단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가격 상승기에는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이 평균법보다 크게 잡히는데, 이를 매출원가 크기와 뒤섞으면 비교 방향을 쉽게 반대로 적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은 먼저 총수량·총원가·매출수량을 정리한 뒤, 계속기록법이면 판매 시점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바로 배분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면 기말재고액부터 구해 매출원가를 역산하면 된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이 평균법보다 크다는 방향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가격 상승기에는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이 높고 매출원가는 낮다. 평균법 값은 그보다 중간에 놓인다.

NoteBase

문 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회전율 계산 시 재고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연평균금액과 매출원가를 이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20%
◯ 현금매출액 ₩10,000
◯ 기초 매출채권 ₩1,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매출채권 회수액 ₩39,000
◯ 기초 재고자산 ₩9,000
◯ 재고자산 매입액 ₩42,000

① 3회
② 4회
③ 5회
④ 6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출채권 자료로 외상매출액을 복원하고,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평균재고자산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매출총이익률 20%
- 현금매출액 10,000원
- 기초 매출채권 1,000원
- 기말 매출채권 2,000원
- 매출채권 회수액 39,000원
- 기초 재고자산 9,000원
- 재고자산 매입액 42,000원

구해야 할 값:
- 재고자산회전율

주의할 조건:
-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의 연평균금액을 사용한다.
- 분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외상매출액은 매출채권 계정식으로 구한다.
기초 매출채권 + 외상매출액 - 회수액 = 기말 매출채권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률로 구한다.
매출원가 = 매출액 × (1-매출총이익률)
재고자산회전율은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평균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재고자산의 기초·기말 평균과 매출원가를 사용하라고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외상매출액을 구하면 $1,000 + x - 39,000 = 2,000$이므로 $x = 40,000$이다.
2. 총매출액은 현금매출액 10,000원과 외상매출액 40,000원을 합한 50,000원이다.
3.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50,000 \times 80\% = 40,000$원이다.
4. 기말재고자산은 $9,000 + 42,000 - 40,000 = 11,000$원이다.
5. 평균재고자산은 $(9,000 + 11,000) \div 2 = 10,000$원이다.
6. 재고자산회전율은 $40,000 \div 10,000 = 4$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재고자산회전율의 계산 결과는 4회이므로 3회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3회'이고, 올바르게는 '4회'이다.

② O
외상매출액 40,000원, 총매출액 50,000원, 매출원가 40,000원, 평균재고자산 10,000원을 순서대로 구하면 재고자산회전율은 4회가 된다.

③ X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5회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5회'이고, 올바르게는 '4회'이다.

④ X
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6회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6회'이고, 올바르게는 '4회'이다.

오답 포인트

매출채권 회수액이 주어졌다고 이를 바로 매출액으로 오해하면 외상매출액을 잘못 잡게 된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의 분자를 매출액으로 두거나, 평균재고자산 대신 기말재고자산만 넣으면 오답이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전율 문제는 먼저 분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매출액이나 원가를 보조자료로 복원한 뒤, 마지막에 평균잔액을 분모에 넣어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현금흐름 관련 자료이다. 20×1년 (주)한국의 현금매출액 ₩200,000, 신용매출액 ₩1,500,000, 매출원가 ₩260,000일 때,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구분	기초	기말
매출채권	₩ 240,000	₩ 210,000
재고자산	₩ 90,000	₩ 105,000
매입채무	₩ 50,000	₩ 58,000

① ₩ 1,447,000

② ₩ 1,463,000

③ ₩ 1,478,000

④ ₩ 1,493,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법에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증감을 반영해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현금매출액 200,000원, 신용매출액 1,500,000원, 매출원가 260,000원이다.
매출채권은 240,000원에서 210,000원으로 30,000원 감소하였다.
재고자산은 90,000원에서 105,000원으로 15,000원 증가하였다.
매입채무는 50,000원에서 58,000원으로 8,000원 증가하였다.
구해야 할 값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이다.

사용할 공식

고객현금유입 = 현금매출액 + 신용매출액 + (기초 매출채권 - 기말 매출채권)
매입액 = 매출원가 + (기말 재고자산 - 기초 재고자산)
공급자현금지출 = 매입액 - (기말 매입채무 - 기초 매입채무)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 고객현금유입 - 공급자현금지출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직접법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과 실제 현금으로 나간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그 차이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은 현금매출액과 신용매출 회수액을 합해 계산한다.
200,000 + 1,500,000 + (240,000 − 210,000) = 1,730,000
2. 매입액은 매출원가에 재고자산 증가분을 더해 계산한다.
260,000 + (105,000 − 90,000) = 275,000
3.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매입액에서 매입채무 증가분을 차감해 계산한다.
275,000 − (58,000 − 50,000) = 267,000
4.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1,730,000 − 267,000 = 1,463,000

선지별 해설

① X. 1,447,000원은 재고자산 증가 15,000원을 매입액에 더한 뒤 매입채무 증가 8,000원을 오히려 더해 현금지출을 283,000원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순현금흐름 금액 자체이며, 올바르게는 1,463,000원이다.
② O. 고객현금유입은 1,730,000원이고 공급자현금지출은 267,000원이므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463,000원이다. 매출채권 감소는 현금회수 증가로, 재고자산 증가는 매입액 증가로, 매입채무 증가는 현금지출 감소로 반영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X. 1,478,000원은 재고자산 증가 15,000원을 반영하지 않고 매입액을 사실상 매출원가 수준으로 보아 현금지출을 과소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순현금흐름 금액 자체이며, 올바르게는 재고 증가분을 포함한 1,463,000원이다.
④ X. 1,493,000원은 매출채권 감소 30,000원과 매입채무 증가 8,000원은 반영하면서 재고자산 증가 15,000원을 누락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순현금흐름 금액 자체이며, 올바르게는 1,463,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법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바로 현금지출로 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재고자산 증가를 매입액에 더하고, 매입채무 증가는 아직 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므로 차감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법 계산형은 먼저 고객현금유입과 공급자현금지출을 분리한 뒤, 매출채권은 수입 조정, 재고자산은 매입액 조정, 매입채무는 지급액 조정이라는 순서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직접법은 매출채권 감소는 현금유입 가산, 재고자산 증가는 현금유출 가산, 매입채무 증가는 현금유출 차감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다음 (주)한국의 고객과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를 이용한 20×1년 인식할 수익은?

◯ 계약정보
- 총계약금액: ₩80,000
- 계약기간: 20×1년 7월 1일 ~ 20×2년 6월 30일
- 수행의무: A제품 인도, B용역 제공
• A제품은 일시에 수행의무 이행
• B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 이행
• 수행의무는 개별적으로 구분됨
◯ 개별 판매가격
- A제품: ₩60,000
- B용역: ₩40,000
◯ 20×1년 말 수행의무 이행현황
- A제품: 20×1년 8월 15일 인도 완료
- B용역: 50% 이행 완료

① ₩48,000
② ₩54,000
③ ₩64,000
④ ₩8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리된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한 뒤, 시점 인식 수익과 기간 인식 수익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총계약금액 80,000원
- 개별 판매가격: A제품 60,000원, B용역 40,000원
- A제품은 일시에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20×1년 8월 15일 인도 완료
- B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20×1년 말 현재 50% 이행 완료

구해야 할 값:
- 20×1년에 인식할 총수익

주의할 조건:
- 수행의무는 개별적으로 구분되므로 거래가격을 먼저 배분한 뒤 각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점을 따로 판단한다.

사용할 공식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한다.

A 배분금액 = 80,000 × (60,000)/(60,000+40,000) = 48,000

B 배분금액 = 80,000 × (40,000)/(60,000+40,000) = 32,000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용역 수익은 배분금액에 진행률을 곱해 인식한다.

B 용역 수익 = 32,000 × 50\% = 16,0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A제품과 B용역이 분리된 수행의무이므로 총계약금액 80,000원을 바로 전액 인식하거나 임의 배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A제품 배분금액은 48,000원이다.
2. A제품은 20×1년 8월 15일에 인도 완료되었으므로 20×1년에 48,000원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다.
3. B용역 배분금액은 32,000원이다.
4. B용역은 20×1년 말 현재 50% 이행 완료이므로 20×1년에 인식할 수익은 16,000원이다.
5. 따라서 20×1년 총인식수익은 48,000원 + 16,000원 = 64,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48,000원은 A제품에 배분된 금액만 인식한 값이다. B용역은 20×1년 말 현재 50% 이행되었으므로 16,000원을 추가로 인식해야 한다.
- 틀린 표현은 "20×1년 인식수익이 48,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1년 인식수익은 64,000원이다"이다.

② X
- 54,000원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과 B용역 진행률 50%를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계산상 48,000원과 16,000원을 합해야 하므로 54,000원이 될 수 없다.
- 틀린 표현은 "20×1년 인식수익이 54,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1년 인식수익은 64,000원이다"이다.

③ O
- A제품 수익 48,000원과 B용역 수익 16,000원을 합하면 64,000원이다. 분리된 수행의무별 배분과 인식 기준을 모두 반영한 값이므로 옳다.

④ X
- 80,000원은 총계약금액 전액이다. 그러나 20×1년 말 현재 B용역은 아직 50%만 이행되었으므로 B용역 배분금액 32,000원 전액을 인식할 수 없다.
- 틀린 표현은 "20×1년 인식수익이 80,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20×1년 인식수익은 64,0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A제품만 보고 B용역의 진행률 수익을 누락하기 쉬운 함정을 노린 선지이다. ④는 총계약금액 80,000원을 수행의무 배분 없이 전액 인식하는 오류를 노린 선지이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분리된 수행의무별 배분"과 "기간 인식은 진행률만큼만 인식"을 동시에 놓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수익 문제는 먼저 수행의무가 분리되는지 확인하고, 분리되면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한 다음, 각 수행의무가 시점 인식인지 기간 인식인지 구분해 해당 연도 인식분만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분리된 수행의무는 배분 후 각각 인식한다. 시점 인식은 전액, 기간 인식은 진행률만 반영한다.

NoteBase

문 10.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②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③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④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위험부담 주체, 그리고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측정과 재측정요소의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정해진 기여금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급여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남는 제도이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의 의무는 기금에 약정한 출연액으로 끝나지 않는다.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부담이 생기면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
틀린 표현은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이다. 올바르게는 "기금 출연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확정기여제도이고, 확정급여제도는 약정급여 자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이다.

② X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그 위험은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틀린 표현은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그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확정급여제도이다"이다.

③ X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뒤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즉 재순환이 금지된다.
틀린 표현은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되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이다.

④ O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금액과 재무제표 인식금액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정기적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맞다.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의무와 제도자산을 반영하기 위한 측정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핵심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③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재측정요소도 결국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점을 노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본다. 기여금만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여제도, 최종 급여의무를 기업이 부담하면 확정급여제도이다. 그다음 재측정요소가 나오면 기타포괄손익 인식 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확정기여는 기여금 확정, 확정급여는 급여의무 확정, 재측정요소는 OCI 인식 후 재분류 금지이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주)한국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가액이 ₩6,600일 때 손실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은?

◯ 기초 손실충당금 ₩1,000
◯ 당기 중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400
◯ 기말 결산 시 추가로 설정한 손실충당금 ₩800

① ₩7,600
② ₩7,800
③ ₩8,000
④ ₩8,2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 손실충당금, 당기 대손처리, 기말 추가 설정액을 반영해 기말 손실충당금을 계산한 뒤 순매출채권에서 차감 전 매출채권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 손실충당금 1,000원, 당기 중 대손처리한 매출채권 400원, 기말 추가 설정 손실충당금 800원, 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가액 6,6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기말 손실충당금 차감 전 매출채권이다.
주의할 조건: 대손처리 400원은 손실충당금을 감소시키고, 기말 추가 설정 800원은 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사용할 공식

기말 순매출채권 = 기말 매출채권 - 기말 손실충당금
기말 손실충당금 = 기초 손실충당금 - 대손처리액 + 기말 추가 설정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차감 후 장부가액이 주어졌으므로 먼저 기말 손실충당금 잔액을 확정한 뒤, 그 금액을 다시 더하면 차감 전 매출채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말 손실충당금을 계산한다.
기초 1,000원 - 당기 대손처리 400원 + 기말 추가 설정 800원 = 1,400원이다.
2. 차감 후 장부가액 6,600원에 기말 손실충당금 1,400원을 더한다.
6,600원 + 1,400원 = 8,000원이다.
3. 따라서 손실충당금 차감 전 기말 매출채권은 8,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7,600원은 차감 후 장부가액 6,600원에 기초 손실충당금 1,000원만 더한 값이다. 그러나 더해야 할 금액은 기초 잔액이 아니라 기말 손실충당금 1,400원이다. 올바른 값은 8,000원이다.
② X: 7,800원은 대손처리 400원과 추가 설정 800원만 반영하고 기초 손실충당금 1,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순매출채권에 더하는 금액은 기말 손실충당금 전체 1,400원이므로 8,000원이어야 한다.
③ O: 기말 손실충당금은 1,000원 - 400원 + 800원 = 1,400원이다. 따라서 차감 전 매출채권은 6,600원 + 1,400원 = 8,000원이다.
④ X: 8,200원은 기말 손실충당금을 1,6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대손처리 400원은 손실충당금을 줄이는 항목이지 더하는 항목이 아니다. 올바른 값은 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대손처리액 400원을 매출채권 총액에 다시 더하거나, 기초 손실충당금과 기말 손실충당금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차감 후 장부가액에 더해야 할 금액이 기초 잔액이 아니라 기말 잔액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채권 관련 계산형 문제는 기초 충당금에서 대손처리로 감소한 금액과 기말 추가 설정으로 증가한 금액을 먼저 반영해 기말 손실충당금을 확정한 뒤, 순장부가액과의 관계식으로 차감 전 금액을 역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매출채권 = 총매출채권 - 기말 손실충당금, 기말 손실충당금 = 기초 잔액 - 대손처리 + 추가 설정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주)한국의 20X1년 개발 관련 자료를 이용한 무형자산 개발비 상각액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개발단계(1월 초부터 6월 말)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은 총 ₩200,000(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을 합한 값)
◯ 1월 초 개발단계에서만 사용하는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 이중체감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20,000에 취득하여 개발단계에서 사용
◯ 4월 초부터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이 개발비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
◯ 7월 초부터 개발 기술이 사용가능하여 실제 생산에 적용
◯ 무형자산 개발비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

① ₩3,500
② ₩4,300
③ ₩5,300
④ ₩6,5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의 지출만 자본화하고, 사용 가능 시점부터 월할 상각하는지를 묻는 계산형 문항이다.

조건 정리

- 인건비와 재료비는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총 200,000원이며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다.
- 개발비 인식요건은 4월 초부터 충족한다.
- 기계장치는 개발단계에서만 사용하며 취득원가는 120,000원,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00원, 상각방법은 이중체감법이다.
-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직접 곱하므로 중간 기간에는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으며, 잔존가치(1,000원)는 마지막 연도에 장부금액이 잔존가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때에만 고려한다. 따라서 20×1년 상각액 계산에서는 잔존가치 1,000원을 반영하지 않는다.
- 개발기술은 7월 초부터 사용 가능하다.
- 무형자산 개발비는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개발비 상각액=자본화된 개발비×당기 상각 개월수총 상각 개월수

자본화된 개발비는 인식요건 충족 후의 직접원가와 그 기간의 관련 감가상각비만 포함한다.

이 문제는 4월 초부터만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4월부터 6월까지의 발생분만 개발비가 되고, 7월 초 사용 가능 이후 6개월분만 당기 상각액이 된다.

계산 과정

1. 인건비와 재료비의 월별 발생액은 $200,000 \div 6 = 33,333.33$원이다.
2. 자본화 대상 직접원가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이므로 $33,333.33 \times 3 = 100,000$원이다.
3. 기계장치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중체감법으로 $120,000 \times \frac{2}{10} = 24,000$원이고, 월별 감가상각비는 $24,000 \div 12 = 2,000$원이다.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120,000원)에 상각률 $\frac{2}{10}$을 직접 곱하므로 첫해에는 잔존가치 1,000원을 빼지 않는다.
4. 자본화 대상 감가상각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이므로 $2,000 \times 3 = 6,000$원이다.
5. 자본화된 개발비는 $100,000 + 6,000 = 106,000$원이다.
6. 7월 초 사용 가능하므로 당기 상각 개월수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7. 당기 상각액은 $106,000 \times \frac{6}{120} = 5,3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계산 결과 상각액은 5,300원이므로 3,500원은 틀리다.
- 틀린 표현은 '3,500원'이며, 올바르게는 '5,300원'이다.
- 3,500원은 자본화액을 70,000원으로 잡고 $70,000 \times \frac{6}{120} = 3,500$원으로 계산한 경우에 나온다. 즉 올바른 자본화액 106,000원보다 36,000원을 덜 잡은 것으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6,000원을 누락하고 직접원가까지 100,000원보다 작게(예: 4월부터 6월 3개월분을 일부만 반영) 집계할 때 발생한다. 자본화액(106,000원)과 상각 개월수(6개월)를 모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② X
- 계산 결과 상각액은 5,300원이므로 4,300원은 틀리다.
- 틀린 표현은 '4,300원'이며, 올바르게는 '5,300원'이다.
- 4,300원은 자본화액을 86,000원으로 잡고 $86,000 \times \frac{6}{120} = 4,300$원으로 계산한 경우에 나온다. 즉 올바른 자본화액 106,000원보다 20,000원을 덜 잡은 것으로, 직접원가나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누락해 자본화액이 106,000원에 못 미칠 때 발생한다.

③ O
- 4월부터 6월까지의 자본화 대상 금액은 직접원가 100,000원과 감가상각비 6,000원을 합한 106,000원이다.
- 이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정액 상각하면 $106,000 \times \frac{6}{120} = 5,300$원이므로 옳다.

④ X
- 계산 결과 상각액은 5,300원이므로 6,500원은 틀리다.
- 틀린 표현은 '6,500원'이며, 올바르게는 '5,300원'이다.
-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월부터 3월까지의 직접원가나 감가상각비를 자본화액에 포함하면 분자가 106,000원보다 커져 5,300원보다 큰 금액이 나온다. 자본화는 4월 이후 발생분만 대상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두 번 있다. 첫째, 1월부터 지출이 발생해도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한 4월 이후 발생분만 자본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비에 직접원가만 넣고 개발에 사용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빼먹기 쉽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발비 계산 문제는 먼저 자본화 개시 시점을 끊고, 그 이후의 직접원가와 관련 간접원가를 모은 다음, 사용 가능 시점부터의 상각 개월수를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개발비는 '인식요건 충족 후 자본화, 사용 가능 후 상각'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②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④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금융상품의 표시에서 상계 요건, 금융부채 관련 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자기지분상품 거래의 자본 직접 처리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는 현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과 순액결제 또는 동시결제 의도가 함께 있을 때만 허용된다.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기업이 자기 자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므로 발생 차액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직접 처리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과 관련한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지분거래 원가는 자본에서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결제하거나 자산 실현과 부채 결제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만 순액표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표현이다.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며, 자기지분상품의 취득·처분·발행·소각에서 생기는 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처리한다.

③ O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 또는 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손익은 부채 관련 성격이므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④ O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의 환급 또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도 자본에서 차감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보거나 일반 금융상품 매매손익처럼 당기손익으로 보내는 착각을 노린 선지이다. 이 문항은 금융부채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가지만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자본에서 직접 처리된다는 분류 기준을 뒤섞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자기주식, 자기지분상품, 지분상품 보유자 분배가 나오면 먼저 자본 직접 처리 항목인지 본다. 반대로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의 이자·배당·손익이라고 하면 당기손익 인식으로 판단한다. 상계는 상계권과 순액결제 또는 동시결제 의도를 함께 요구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기지분상품 거래는 손익이 아니라 자본, 금융부채 관련 이자·배당·손익은 당기손익이다.

NoteBase

문 14.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 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급적용이 어려운 때의 처리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은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회계처리의 원칙이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변경 후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대해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허용된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회계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금액부터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다만 기준서가 범주별로 다른 정책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그 범주별로 일관 적용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포함한다"이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적용하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처음 정책을 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③ O
회계정책은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경 후 정보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의 영향에 대해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해질 때 자발적 변경이 허용된다. 문장의 판단 기준이 기준서의 허용 요건과 일치한다.

④ O
비교정보에 대한 기간별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소급적용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자산·부채 장부금액에 새 정책을 반영하고 관련 자본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이는 전면 소급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 처리 원칙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표현만 보고 회계정책 변경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준서가 문제 삼는 것은 기존 유사거래에 적용하던 정책을 바꾸는지 여부이다. 과거에 없었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를 처음 회계처리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라 최초 적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그 거래가 기존과 유사한 계속적 거래인지, 과거에 없던 거래인지 구분한다. 기존 유사거래의 정책을 바꾸면 회계정책 변경이고, 처음 생긴 거래에 정책을 정하면 변경이 아니다. 회계정책 변경으로 확정되면 원칙은 소급적용이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면 가장 이른 실무가능 시점의 기초금액부터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유사거래는 동일정책, 정책변경은 소급, 과거 미발생·비중요 거래의 최초 적용은 정책변경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년 초 건설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2,000,000)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사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건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한국은 건설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분	20×1년	20×2년
발생원가	₩ 100,000	₩ 200,000
대금청구액	₩ 250,000	₩ 100,000
대금회수액	₩ 100,000	₩ 150,000
추정총계약원가	₩ 1,000,000	₩ 1,500,000

① 20×1년 말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는 ₩40,000이다.

② 20×2년 말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은 ₩50,000이다.

③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50,000이다.

④ 20×2년 공사수익은 ₩100,00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 투입법으로 계산하여 누적 공사수익, 계약자산·계약부채, 공사미수금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계약금액은 ₩2,000,000이다.
20×1년 발생원가는 ₩100,000, 추정총계약원가는 ₩1,000,000이다.
20×2년 추가 발생원가는 ₩200,000, 20×2년 말 추정총계약원가는 ₩1,500,000이다.
누적 대금청구액은 20×1년 말 ₩250,000, 20×2년 말 ₩350,000이다.
누적 대금회수액은 20×1년 말 ₩100,000, 20×2년 말 ₩250,000이다.
구해야 할 값:
각 연도 말 계약자산·계약부채, 20×2년 말 공사미수금, 20×2년 공사수익이다.
주의할 조건:
건설용역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므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진행률=(누적발생원가)/(추정총계약원가)
누적공사수익=계약금액× 진행률
계약자산(부채)=누적공사수익-누적대금청구액
공사미수금=누적대금청구액-누적대금회수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진행률을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추정한다고 했으므로 원가진행률로 누적 공사수익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수익과 누적 청구액을 비교해 계약자산·계약부채를 판단한다. 공사미수금은 청구는 했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누적 청구액과 누적 회수액의 차이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20×1년 말 진행률은 100,000 ÷ 1,000,000 = 10%이다.
2. 20×1년 말 누적공사수익은 ₩2,000,000 × 10% = ₩200,000이다. 누적 대금청구액 ₩250,000이 더 크므로 계약부채는 ₩50,000이다.
3. 20×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300,000이고, 수정된 추정총계약원가는 ₩1,500,000이므로 진행률은 20%이다.
4. 20×2년 말 누적공사수익은 ₩2,000,000 × 20% = ₩400,000이다. 누적 대금청구액은 ₩350,000이므로 계약자산은 ₩50,000이다.
5. 20×2년 말 공사미수금은 누적 대금청구액 ₩350,000 - 누적 대금회수액 ₩250,000 = ₩100,000이다.
6. 20×2년 공사수익은 누적공사수익 ₩400,000 -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 ₩200,000 = ₩200,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20×1년 말 계약부채는 누적 대금청구액 ₩250,000 - 누적공사수익 ₩200,000 = ₩50,000이다. 틀린 표현은 "₩40,000"이고, 올바르게는 "₩50,000"이다.
② O: 20×2년 말 누적공사수익은 ₩400,000이고 누적 대금청구액은 ₩350,000이므로 계약자산은 ₩50,000이다. 수익이 청구보다 큰 만큼 미청구공사 50,000원이 맞다.
③ X: 공사미수금은 청구했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350,000 - ₩250,000 = ₩100,000이다. 틀린 표현은 "₩50,000"이고, 올바르게는 "₩100,000"이다.
④ X: 20×2년 공사수익은 당기 누적수익이 아니라 당기 인식액이므로 ₩400,000 - ₩200,000 = ₩200,000이다. 틀린 표현은 "₩100,000"이고, 올바르게는 "₩200,000"이다.

오답 포인트

계약자산·계약부채와 공사미수금을 같은 개념으로 섞으면 틀리기 쉽다. ③은 청구액과 회수액의 차이를 묻는 공사미수금인데, ②의 계약자산 50,000원과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④는 누적공사수익 400,000원에서 전기 인식액 200,000원을 차감하지 않으면 잘못된 금액이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진행기준 공사 문제는 누적발생원가로 진행률을 먼저 구하고, 그 진행률로 누적공사수익을 계산한 뒤, 누적수익과 누적청구액을 비교해 계약자산·계약부채를 판단한다. 공사미수금은 별도로 누적청구액과 누적회수액의 차이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자산·계약부채는 누적수익 대 누적청구의 비교이고, 공사미수금은 누적청구 대 누적회수의 비교이다.

NoteBase

문 16. ㈜한국은 20×1년 초 상환의무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 ₩180,000을 수취하여 기계장치를 ₩720,000(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60,00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에 취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1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10,000이다.

②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60,000이다.

③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2년 보조금 수익 인식액은 ₩30,000이다.

④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70,00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는 방법과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누계액, 보조금수익,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720,000, 잔존가치는 ₩60,000, 내용연수는 6년이다.
정액법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매년 동일하다.
보조금 ₩180,000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내용연수 6년에 걸쳐 연 ₩30,000씩 대응시킨다.
취득 시점이 20×1년 초이므로 월할 계산을 하더라도 20×1년과 20×2년은 각각 12개월 전액이 반영된다.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
$\frac{720,000 - 60,000}{6} = 110,000$
연간 보조금 수익(또는 자산 차감 효과):
$\frac{180,000}{6} = 30,000$
정액법 상각과 정부보조금의 기간대응을 함께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감가상각비와 보조금 배분액을 각각 먼저 구해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계장치의 총원가 기준 연간 감가상각비는 ₩110,000이다.
2. 자산 차감 표시 방법에서는 20×1년 말 미배분 보조금 잔액이 ₩150,000이므로 순장부가액은 ₩720,000 - ₩110,000 - ₩150,000 = ₩460,000이다.
3. 이연수익 표시 방법에서는 자산을 총원가로 유지하므로 20×2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720,000 - ₩220,000 = ₩500,000이다.
4. 이연수익으로 표시한 보조금은 매년 ₩30,000씩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20×2년 보조금수익도 ₩30,000이다.

선지 판단

① O: 자산 차감 표시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보조금 미상각잔액을 별도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즉 취득원가를 보조금만큼 줄인 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보조금 미상각잔액 = 순장부가액' 구조로 나타낸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총원가 ₩720,000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10,000이다.
② O: 자산 차감 표시 방법의 20×1년 말 순장부가액은 총원가 ₩72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110,000과 미배분 보조금 잔액 ₩150,000을 차감한 ₩460,000이다.
③ O: 이연수익 표시 방법에서는 보조금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익 인식하므로 20×2년의 보조금수익 인식액은 ₩30,000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70,000이다'이다. 이연수익 표시 방법에서는 자산을 총원가로 유지하므로 20×2년 말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720,000 - 2년 누적감가상각 ₩220,000 = ₩500,000이다. 올바르게는 '20×2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00,000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자산 차감 표시 방법을 곧바로 취득원가 자체 감소로만 이해하면 ①의 감가상각누계액을 ₩80,000으로 잘못 잡기 쉽다. 또 ④에서는 이연수익 방식인데도 자산 차감 방식의 순액 사고를 섞어 장부가액을 과소계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보조금 문제는 먼저 총원가 기준 감가상각비를 구한 뒤, 자산 차감 표시인지 이연수익 표시인지를 나누어 본다. 자산 차감 표시는 순장부가액 계산에서 미배분 보조금 잔액을 차감하고, 이연수익 표시는 자산 장부가액과 보조금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연수익 방식은 자산은 총원가, 보조금은 별도 수익화이고 자산 차감 표시는 순장부가액에서 보조금 잔액을 뺀다.

NoteBase

문 17. 다음 (주)한국의 20×1년 자본 관련 자료를 이용한 기본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당기순이익: ₩15,000,000
◯ 보통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10,000주
◯ 우선주: 액면금액 ₩1,000, 기초 발행주식수 37,250주, 배당률 연 10%
◯ 보통주에 대해 7월 1일 공정가치로 5% 유상증자, 11월 30일 10% 무상증자 시행

① ₩1,000
② ₩1,500
③ ₩3,725
④ ₩5,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선주배당금 차감과 무상증자 소급반영을 포함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당기순이익 15,000,000원, 보통주 기초 발행주식수 10,000주, 우선주 37,250주, 우선주 배당률 연 10%이다.
구해야 할 값: 기본주당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7월 1일 5% 유상증자는 그 시점부터 반영하고, 11월 30일 10% 무상증자는 연초부터 소급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귀속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보통주귀속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해 구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기간 중 유통된 보통주 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우선주배당금은
37,250주 × 1,000원 × 10\% = 3,725,000원
보통주귀속순이익은
15,000,000원 - 3,725,000원 = 11,275,000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과 무상증자 소급반영을 적용하면
(10,000주 × 1.1 × 6/12) + (10,500주 × 1.1 × 6/12) = 11,275주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은
11,275,000원 ÷ 11,275주 = 1,000원
이다.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기본주당이익은 1,000원이다.
② X: 1,500원은 당기순이익 15,000,000원을 기초 보통주식수 10,000주로 단순히 나눈 값에 가깝다. 우선주배당금 차감과 연중 주식수 변동 반영이 빠졌다. 틀린 값 1,500원 → 올바르게는 1,000원이다.
③ X: 3,725원은 우선주배당금 3,725,000원을 주당 수치처럼 잘못 읽은 값이다. 우선주배당금은 기본주당이익의 분자에서 차감하는 총액이다. 틀린 값 3,725원 → 올바르게는 1,000원이다.
④ X: 5,000원은 보통주귀속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관계를 무시한 값이다. 이 문제의 분모는 월할 계산과 무상증자 소급반영 후 11,275주이므로 5,000원이 나올 수 없다. 틀린 값 5,000원 → 올바르게는 1,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고 우선주배당금을 먼저 차감한다. 또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기말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가중평균주식수 계산에서 연초부터 소급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주당이익 문제는 보통주귀속순이익 계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월할 계산, 무상증자·주식배당의 소급반영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소급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NoteBase

문 18.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상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회계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상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체, 통합 주체, 제출 기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와 국가결산보고서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주체와 기한을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다.

용어 풀이

중앙관서결산보고서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기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이다.
국가결산보고서 =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 전체의 결산보고서이다.
성인지 결산서 = 예산 집행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친 효과를 평가한 결산 보고서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자기 소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뒤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즉 2월 말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제출 기한이고, 4월 10일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내는 기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결산의 1차 작성 주체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② O
「국가회계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 전체 결산은 각 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 작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문장에서 형식적 명칭을 '보고서'라고 표현했을 뿐 내용은 성인지 결산서의 취지와 일치한다.

④ X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 연도 4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4월 10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단계의 기한이다.
틀린 표현: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올바른 표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오답 포인트

④는 4월 10일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으면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기한이 어느 단계의 것인지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중앙관서의 장의 제출 단계와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단계를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산 관련 문항은 먼저 문장의 주체가 각 중앙관서의 장인지 기획재정부장관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문서가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인지 국가결산보고서인지 구분하고, 제출 기한이 2월 말인지 4월 10일인지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2월 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 감사원 제출이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투자증권과 외화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정가액 평가의 예외와 화폐성·비화폐성 외화항목의 환산기준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받을 금액이나 지급할 금액이 화폐액으로 확정된 항목이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재고자산, 유형자산처럼 확정된 화폐액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닌 항목이다.

핵심 구분

국가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가 원칙이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상 외화항목은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나누어 본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고,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 지분증권은 취득원가 평가가 원칙이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 평가 후 차이금액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맞다.

② 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 취득원가를 산정하므로 옳다.

③ 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을 적용해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④ X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를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회계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표현: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올바른 표현: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화폐성 항목의 기말환산 원칙을 비화폐성 항목에 그대로 옮겨 놓은 함정이다. 외화항목 문제에서는 먼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부터 나누지 않으면 기말환율과 역사적 환율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기준 규정형 문제는 먼저 자산·부채의 종류를 분류한 뒤 각 분류의 기본 평가원칙을 대입해 판단한다.
외화항목이면 화폐성은 기말환율, 비화폐성은 역사적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먼저 걸러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외화항목은 화폐성은 기말환율, 비화폐성은 취득 시 환율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2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비용은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운영표의 작성 단위와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수익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와 이를 통합한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다.

핵심 구분

규칙 제24조는 재정운영표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정의한다.
규칙 제25조제1항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수익을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표시한다고 정한다.
반면 규칙 제26조제1항은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수익을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표시한다고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규칙 제25조제1항의 내용과 같다.

② O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한다는 규칙 제26조제1항의 내용과 같다.

③ X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수익에는 국세수익이 들어가지 않는다. 규칙 제25조제3항은 수익을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만 구분한다.
틀린 표현: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올바른 표현: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은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O
재정운영표를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보는 것은 규칙 제24조의 정의와 같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중앙관서 또는 기금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국가 통합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섞어 기억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수익은 국가 전체 재정운영표의 성질별 구분에는 나타나지만,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수익 구분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운영표 문제는 먼저 작성 주체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인지, 아니면 이를 통합한 국가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면 프로그램별·성질별, 국가이면 분야별·성질별이라는 틀을 대입하고, 성질별 수익에 국세수익이 포함되는지는 국가 전체 재정운영표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중앙관서·기금은 프로그램별, 국가는 분야별이며 국세수익은 국가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만 전면에 나온다.

NoteBase

문 21.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② 제조기업의 제조원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구성되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③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적인 추적을 통해서 집계되고, 간접원가(공통원가)는 배부기준을 통해서 원가대상에 배부된다.

④ 원가는 원가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측정방법도 달라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의 구분, 제조원가와 기간원가의 구분,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총제조원가: 일정 기간에 제조활동에 투입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의 합계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에 완성되어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이다.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축은 원가대상에 대한 직접 추적 가능성이고, 제조원가와 판매비·관리비의 구분축은 제품원가 포함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당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를 당기총제조원가라고 한 표현이다. 이는 당기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발생하여 제조공정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이다.
② O: 제조기업의 제조원가는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구성된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을 판매하고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간원가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③ O: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고, 간접원가인 공통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통해 원가대상에 배부한다. 원가의 집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④ O: 원가는 재무보고, 가격결정, 의사결정, 성과평가 등 활용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된다. 실제원가, 정상원가, 표준원가처럼 측정방법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당기총제조원가와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이름이 비슷하여 자주 뒤바뀐다. '당기에 발생한 원가'인지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인지 기준 시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①에 쉽게 속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총제조원가는 발생 기준, 제품제조원가는 완성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장에 '발생한 제조원가의 합계'가 나오면 당기총제조원가이고,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가 나오면 당기제품제조원가이다.

암기 포인트

총제조원가=당기 발생, 제품제조원가=당기 완성, 판관비=기간원가이다.

NoteBase

문 22.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6,000,000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200,000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0(과소)

① 25,000시간
② 28,000시간
③ 30,000시간
④ 32,000시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과소배부액을 이용해 예정배부율과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6,000,000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4,200,000원, 실제 직접노무시간 20,000시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200,000원 과소이다.
구해야 할 값은 연간 예정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의할 조건은 '과소배부'이므로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200,000원 크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예정 직접노무시간)이다.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 × 실제 직접노무시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를 실제 직접노무시간에 예정배부율을 곱해 배부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소배부 200,000원은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200,000원 큰 상태이므로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4,200,000원 - 200,000원 = 4,000,000원이다.
2. 따라서 (6,000,000원)/(예정 직접노무시간) × 20,000시간 = 4,000,000원이다.
3. 정리하면 (6,000,000)/(예정 직접노무시간) = 2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6,000,000)/(200) = 30,000시간이다.

선지 판단

① X: 25,000시간이면 예정배부율은 240원이고 배부액은 4,800,000원이다. 이는 실제 발생액 4,200,000원보다 600,000원 많아 과다배부가 된다. 틀린 표현은 '200,000원 과소배부를 만드는 예정시간'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30,000시간이어야 한다.
② X: 28,000시간이면 예정배부율은 약 214.29원이고 배부액은 약 4,285,714원이다. 이는 실제 발생액보다 약 85,714원 많은 과다배부이다. 틀린 표현은 '과소배부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30,000시간일 때만 200,000원 과소배부가 된다.
③ O: 30,000시간이면 예정배부율은 200원이고 배부액은 4,000,000원이다. 실제 발생액 4,200,000원보다 200,000원 적으므로 과소배부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32,000시간이면 예정배부율은 187.5원이고 배부액은 3,750,000원이다. 이는 실제 발생액보다 450,000원 적어 과소배부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200,000원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과소배부이면 모두 정답'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과소배부 금액까지 200,000원으로 일치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과소배부'를 과다배부로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큰 상태이므로 먼저 배부액을 4,000,000원으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부차이 문제가 나오면 먼저 과소배부인지 과다배부인지부터 판별하고, 그다음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의 관계를 식으로 세운 뒤 예정배부율과 예정조업도를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소배부는 실제 발생액 > 배부액, 과다배부는 실제 발생액 < 배부액이다.

NoteBase

문 23. (주)한국은 다음의 20×1년 분기별 생산량과 총제조원가를 이용하여 고저점법으로 원가를 추정한다. (주)한국이 20×2년 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시 ₩200,000의 고정원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80 %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년 1분기 500단위 생산 시 추정 총제조원가는?

분기, 생산량, 총제조원가
1분기: 320단위, ₩940,000
2분기: 300단위, ₩950,000
3분기: 400단위, ₩1,000,000
4분기: 350단위, ₩980,000

① ₩800,000
② ₩1,000,000
③ ₩1,050,000
④ ₩1,25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저점법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추정한 뒤, 설비투자에 따른 고정원가 증가와 변동원가 감소를 반영하여 추정 총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고점: 3분기 400단위, 총제조원가 1,000,000원
- 저점: 2분기 300단위, 총제조원가 950,000원
- 20×2년 추가 고정원가: 200,000원
- 단위당 변동원가 감소율: 80%
- 구해야 할 값: 20×2년 1분기 500단위 생산 시 추정 총제조원가

주의할 조건: 고저점법은 최고·최저 생산량의 원가 차이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하고, 80% 감소는 기존 단위당 변동원가의 20%만 남는다는 뜻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변동원가 = (고점 총원가 - 저점 총원가)/(고점 생산량 - 저점 생산량)
고정원가 = 총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
추정 총제조원가 = 조정 후 고정원가 + 조정 후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고저점법으로 원가를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고 활동수준과 최저 활동수준의 차이로 변동원가를 먼저 구한 뒤 고정원가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고저점법으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한다.
단위당 변동원가 = 1,000,000 - 950,000400 - 300 = 500원
2. 고정원가를 구한다.
고정원가 = 1,000,000 - 500 × 400 = 800,000원
3. 설비투자 효과를 반영한다.
조정 후 고정원가 = 800,000 + 200,000 = 1,000,000원
조정 후 단위당 변동원가 = 500 × (1 - 0.8) = 100원
4. 500단위 생산 시 총제조원가를 계산한다.
추정 총제조원가 = 1,000,000 + 100 × 500 = 1,050,000원

선지별 해설

① X
- 800,000원은 기존 고정원가만 남기고 추가 고정원가 200,000원과 500단위의 변동원가 50,000원을 모두 누락한 값이다.
- 올바르게는 추정 총제조원가가 1,050,000원이다.
② X
- 1,000,000원은 추가 고정원가까지 반영한 조정 후 고정원가만 적은 값이며, 500단위 생산에 따른 변동원가 50,000원이 빠져 있다.
- 올바르게는 추정 총제조원가가 1,050,000원이다.
③ O
- 고저점법으로 구한 기존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원이고, 80% 감소 후에는 100원이 된다.
- 조정 후 고정원가 1,000,000원에 변동원가 50,000원을 더하면 1,050,000원이므로 정답이다.
④ X
- 1,250,000원은 추가 고정원가 200,000원은 반영했지만 단위당 변동원가가 80% 감소한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기존 500원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다.
- 올바르게는 추정 총제조원가가 1,050,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단위당 변동원가가 80% 감소'를 80%만 남는 것으로 잘못 읽는 점이다. 이 조건은 기존 변동원가의 20%만 남는다는 뜻이므로 500원이 100원으로 바뀐다. 또 고저점법에서는 총원가가 아니라 활동량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변동원가를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저점법 문제는 먼저 활동량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아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하고, 그다음 고정원가를 분리한 뒤, 마지막에 추가 조건인 고정원가 증감과 변동원가 증감률을 반영하여 총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저점법은 활동량 차이로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하고, 80% 감소는 기존의 20%만 남는 것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24.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기준조업도(정상조업도) 기계시간은?

실제생산량: 8,000단위
제품단위당 표준기계시간: 5시간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1,7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100,000(유리)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200,000(불리)

① 40,000시간
② 45,000시간
③ 50,000시간
④ 55,000시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로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와 표준배부율을 역산하여 기준조업도 기계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제생산량은 8,000단위이다.
제품단위당 표준기계시간은 5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은 40,000시간이다.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700,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 100,000원 유리는 실제액이 예산액보다 100,000원 적다는 뜻이므로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는 1,800,00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200,000원 불리는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가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보다 200,000원 적다는 뜻이다.

사용할 공식

예산차이 = 실제고정제조간접원가 -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 -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 = 표준배부율 ×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
기준조업도 =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 ÷ 표준배부율
이 문제는 예산차이로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를 복원하고, 조업도차이로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으로 표준배부율을 역산하는 구조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예산차이 100,000원 유리이므로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는 1,700,000원 + 100,000원 = 1,800,000원이다.
2.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은 8,000단위 × 5시간 = 40,000시간이다.
3. 조업도차이 200,000원 불리이므로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는 1,800,000원 - 200,000원 = 1,600,000원이다.
4. 표준배부율은 1,600,000원 ÷ 40,000시간 = 시간당 40원이다.
5. 기준조업도 기계시간은 1,800,000원 ÷ 40원 = 45,000시간이다.

선지 판단

① X: 40,000시간은 실제생산량 8,000단위에 허용된 표준기계시간이다. 기준조업도는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정할 때 쓰는 분모활동량이므로 40,000시간이 아니라 45,000시간이다. 틀린 표현은 '기준조업도는 40,000시간이다'이고, 올바르게는 '40,000시간은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이다'이다.
② O: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 1,800,000원,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 1,600,000원, 표준배부율 시간당 40원을 차례로 구하면 기준조업도는 45,000시간이 된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③ X: 50,000시간은 차이금액의 부호를 단순히 조정하거나 표준허용기계시간에 임의로 더해서는 나올 수 있는 값일 뿐,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의 정의를 따른 계산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기준조업도는 45,000시간이다.
④ X: 55,000시간은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를 같은 방향으로 누적하거나 기준조업도와 실제조업도를 혼동할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차이분석의 정의대로 계산하면 45,000시간이므로 틀리다. 올바른 기준조업도는 45,000시간이다.

오답 포인트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기계시간 40,000시간과 기준조업도 45,000시간을 같은 값으로 보면 틀린다. 또 예산차이의 유리·불리와 조업도차이의 유리·불리를 같은 부호로 처리하면 예산액과 배부액이 뒤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문제는 예산차이로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를 먼저 복원하고, 조업도차이로 배부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 뒤, 실제생산량의 표준허용시간으로 표준배부율을 역산하고, 마지막에 예산액을 표준배부율로 나누어 기준조업도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예산액과 배부액의 차이이고, 기준조업도는 예산고정제조간접원가를 표준배부율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문 25.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최대 1,000단위 생산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는 9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2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제품에는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이 감소하는 것 외에 원가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수락 시에는 기존 판매량을 일부 감소시켜야 한다. 이때 (주)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특별주문제품의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거나 기각하여야 하며,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시장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다)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0
◯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 고정판매관리비 ₩100,000

① ₩600
② ₩650
③ ₩700
④ ₩8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업도 제약이 있는 특별주문에서 관련원가와 기회비용을 함께 반영해 최저수락가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정상판매 예상수량은 900단위이고 최대생산능력은 1,000단위이다.
특별주문 수량은 200단위이다.
특별주문제품의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기존보다 50원 감소하므로 5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무관하므로 관련원가가 아니다.

사용할 공식

특별주문 단위당 최저판매가격 = 특별주문 단위당 관련원가 + 단위당 기회비용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유휴능력 100단위를 넘는 특별주문 100단위 때문에 기존 정상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추가원가뿐 아니라 포기하는 공헌이익도 함께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정상판매 1단위의 공헌이익은 1,000원 - (300원 + 200원 + 100원 + 100원) = 300원이다.
2. 유휴능력은 1,000단위 - 900단위 = 100단위이다.
3. 특별주문 200단위를 수락하면 100단위는 유휴능력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100단위는 정상판매를 포기해야 한다.
4. 포기하는 정상판매의 총 기회비용은 100단위 × 300원 = 30,000원이다.
5. 특별주문 단위당 기회비용은 30,000원 ÷ 200단위 = 150원이다.
6. 특별주문 단위당 관련원가는 300원 + 200원 + 100원 + 50원 = 650원이다.
7. 특별주문 단위당 최저판매가격은 650원 + 150원 = 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600원은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 더한 값이다. 특별주문에도 발생하는 변동판매관리비 50원과 정상판매 포기에 따른 단위당 기회비용 150원이 빠졌다. 올바르게는 800원이다.
② X: 650원은 특별주문 자체의 단위당 관련원가만 반영한 값이다. 생산능력 부족으로 정상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단위당 기회비용 150원을 추가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800원이다.
③ X: 700원은 기회비용을 일부만 반영한 값일 뿐 최저수락가격이 아니다. 포기하는 정상판매의 총 공헌이익 30,000원을 특별주문 200단위에 배분하면 단위당 150원이므로 650원에 더한 최저가격은 800원이다.
④ O: 특별주문 단위당 관련원가 650원에 단위당 기회비용 150원을 더하면 800원이다. 이 가격 이상이어야 특별주문 수락으로 총이익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특별주문 문제에서 유휴능력이 일부 남아 있어도 주문량이 유휴능력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존 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②처럼 추가변동원가만 보고 끝내거나, 고정원가를 포함시키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는 먼저 유휴능력 규모를 계산하고, 주문량이 이를 초과하는지 본다. 초과하면 포기하는 기존 판매수량 × 기존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총 기회비용을 구한 뒤, 이를 특별주문 수량에 배분하여 관련원가에 더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최저가격은 추가변동원가에 부족한 능력만큼의 포기공헌이익을 더한 값이다.

NoteBase